

전북도 장애인 정책 아직도 갈길 멀어

전북연구원·자동차기술원·개발공사 장애인 채용 없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비율도 안지켜

전북도의 장애인관련 정책이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장애인 고용과 우선구매, 사업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도청 출연기관·공기업 중 전북연구원과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장애인 근무는 남의 얘기다. 특히 장애인 고용은 의무사항이지만 그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예컨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3% 이상을 고용해야만 한다.

그 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고용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은 1명과 전북자동차기술원은 2명, 전북개발공사는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 조차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소폭 웃돌 뿐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수칙도 낮다.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비율을 1% 이상으



“우리 뿔났다” 지난 15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어르신, 학생 등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는 전체 구매금액 781억4,687만 원 중 1억8,950만 원을 중증장애

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전체구매물품 중 0.24% 수준에 불과하다. 수년째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각종 장애인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장애인수는 12만9,741명으로 전북인구 186만명의 7.9%에 해당한다. /신광영 기자

“진경준 사건, 법무장관·검찰총장 사과해야”

야3당 법사위원들 공동성명

야3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5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명성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진 검사장 사건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세칭 ‘주식 대박’ 혐의를 받고 있는 진 검사장의 부패와 비리가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의 참병인 검찰의 수뇌 간부가 검찰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120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진 검사장이 이같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직을 수행하며 쌓은 금융지식을 활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더 경악할 일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장 시절 한진그룹 내사 종결을 대가로 처남의 일자리를 요구했다는 보도

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부패척결에 매진해야 할 현직 검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부패를 일삼다반사로 자행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거대 권력자이자 부정부패를 감시할 ‘감시자들’의 일탈과 부패에 국민은 비분강개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아울러 “그럼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인이한 상황인식과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 검사장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법무부 일성은 ‘진 검사장 개인의 일이고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과거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비리의혹이 나올 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은 일회적 반성과 면피성 개선책만 내놔왔다”며 “이런 자세로 검찰의 자정능력을 신뢰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를 바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획기적 결단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화관광재단의 비전 제시 너무 미흡”

도의회 문건위, 문화관광재단·세계소리축제조직위 업무보고 받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지난 15일 제335회 임시회 기간 전북 문화관광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등 민간위탁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완수 위원장(임실)은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관광분야의 이관도 중요하다. 철저히 이관 절차를 이행하고 민간인이 중추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은희 의원(비례)은 전주소리세계축제조직위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북 예술인들이 많다. 이런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무대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 16억이 지원되는 축제인 만큼 소리축제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이 해외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소리축제 자체 수입금으로도 행사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장학수 의원(정읍)은 “문화관광재단의

비전에 대해 출범 이전부터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전 제시부터 너무 미흡한 실정이다. 제대로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고 재단이 선거조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중립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진호 의원(전주)은 “문화관광재단 청년예술대학 운영사업내용을 보면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길 바란다. 특히 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도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성민 의원(장수)은 “소리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케팅 팀장 등 부재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도록 하고 행사장소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환복위, 현지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15일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훈열 위원장과 정호운·이성일·국주영은·김영배·이호근 의원은 부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부안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장애인근로사업장인 “바다의향기”를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등 장애인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광영 기자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신청 8월16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8월 16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의 등 전문과정과 역사·인문·문화·언론 등 교양과정이다. 한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처음 개설해 7기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신광영 기자

홍영표 “환노위 단독 표결처리 유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징계 및 감사청구 요구를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상임위를 원활하게 이끌고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상임위에서 예비비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하다가 표결처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환노위가 고통받는 비정규직이나 노동현장의 여러 문제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데 더 노력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환노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